ISSN 1599-7863

박물관사람들

2014년 겨울 48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전 화** (02) 2077-9790~3
13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여주 고달사터 승탑

책을 만들면서

푸르고 푸른 하늘을 보내니,
또 보고픈 하얀 님이 다가오네...(水)
저 너머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愛)
아름답고 서글픈 흔적들...(文)

버티는 것들이 아름답다...(쩡)
미완은 언제나 가능성을 안고 있기에...(鉉)
다사다난한 한해를 아쉽게 보내려 합니다...(媛)
좋은 게 좋은 거다...(윰)

박물관사람들

발행일 2014년 12월 3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김정태 **기획** 신병찬 **편집회원** 강현자 · 계윤애 · 길문숙 · 문정원 · 서유미 · 정은정 **진행** 서승연 **발행처**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02)2077-9790~3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싣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14년 겨울 48호

기획 | 남한강의 절터
04 남한강의 옛 절터
08 정지된 시간을 지키는 산책자 – 탑비
11 빈 절터에서 마음을 채우다 – 거돈사터

문화칼럼
14 폼페이 : 과거와의 대화

전시실 산책
21 블루 & 화이트

회원마당
18 산수화 속으로의 여정, 그중 하루
24 사람이 만들고 시간이 완성한다

학술상
26 후기 구석기시대 MIS3에서 MIS2까지의
한국과 일본 간의 인류 행동과 석기 제작 기법

박물관회 소식
31 2015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계획
32 박물관 특설강좌 모집안내

숨은 전시
33 비원에서의 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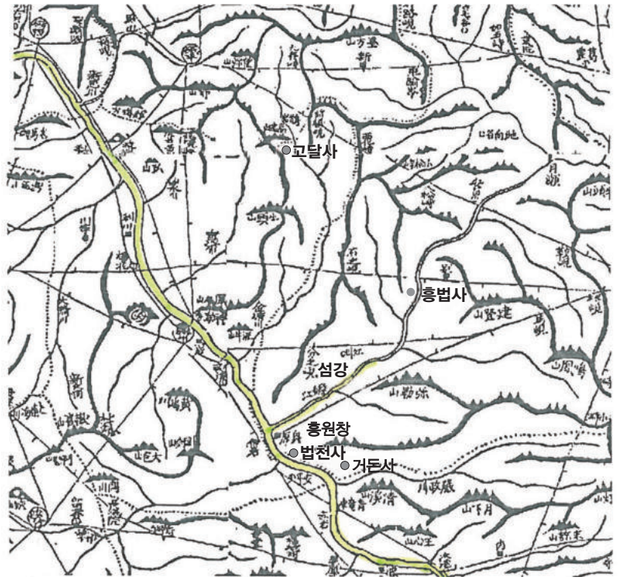
34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남한강의 옛 절터

글 길문숙 회원

곱게 물들었던 단풍도 색이 바래 하나 둘 떨어지는 날, 혹은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스산한 초겨울에 찾아가면 좋을 곳이 바로 폐사지다. 특히 남한강을 따라 가며 만날 수 있는 몇몇 절터는 갈 때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말을 걸며 다가온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강이란 그저 바라보는 대상이거나 다리를 놓아야 건널 수 있는 교통의 장애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태백산 검룡소 혹은 오대산 우통수에서 발원한 남한강은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과 양평 두물머리에서 만나 한강이 되어 서울로 흐른다. 황해로 들어가기 전 파주에서 임진강과 만난 한강은 김포를 거쳐 강화섬에 닿는다.



01 대동여지도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한강, 특히 남한강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내내 강원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영남지방의 물화를 서울로 운송하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고려의 12조창 가운데 충주의 덕흥창과 원주의 흥원창이 남한강 수계에 있었다. '조창'이란 세금으로 걷은 곡물을 모아 보관하고, 이를 수도로 운송하기 위해 해안이나 강변에 세웠던 창고이다. 조선 세조 때 덕흥창의 위치를 약간 옮기고 이름을 가흥창으로 바꿨으나, 흥원창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강을 이용한 운송과 상업은 조선 후기에 한양이 인구 20만에 이르는 대도시로 발전하면서 한층 활발해진다. 배를 이용해 상업을 하는 船商, 포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旅閣, 客主 등이 출현하면서 포구는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된다. 그렇지만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남한강은 이런 역할을 모두 내려놓게 된다.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잡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여주에 있는 고달사터이다. 慧目山에 자리 잡은 고달사는 764년(신라 경덕왕 23)에 창건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크게 융성했으며 전성기에는 사방 30리가 절 땅이었다고 한다.

고달사터는 1990년부터 시작된 발굴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여기저기 드러난 건물터와 석조가 보인다. 눈길을 확 잡아끄는 유물은 남아 있는 귀부와 이수 중 가장 규모가 큰 원종대사 혜진탑비와 이수다. 비신은 1915년에 8조각으로 깨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중인데, 최근에 복제품을 만들어 세웠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 뜰에 있는 고달사터 쌍사자 석등(보물 제282호)이다. 이 석등은 고달사터에 넘어져 있던 것을 현지 주민이 수습하여 보관하다가 1958년 5월 서울시 종로구 종로4가 동원예식장 뒤뜰로 옮겨졌다 한다. 그러다 이듬해 봄에 당시 문교부의 주선으로 경복궁으로 옮겨진다. 2005년 용산의 새 박물관으로 이전하여 전시실 1층 '역사의 길'에 놓였다가 지금은 야외의 석조물 정원에 있다. 고달사터 석조대좌 앞쪽에서 2009년 발굴된 옥개석은 석등 위로 올라갔고, 지금 그 자리에는 지대석만 남아 있다.

고달사터를 나와 문막 쪽으로 길을 잡으면 남한강의 지류인 섬강 중류에 있는 흥법사터가 나온다. 언제 세워졌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경문왕 9년(869)에 태어나 고려 태조 23년(940)에 입적한 진공대사 탑비와 승탑을 보면 신라 말기의 사찰일 것이다. 진공대사가 918년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자 고려 태조가 왕사로 모시고 흥법사를 중건해 주었으며, 71세에 돌아가시자 태조가 직접 시호를 내리고, 비문을 지었다는 것으로 보아 절의 규모가 만여 평에 이르렀다는 설도 믿음이 간다. 하지만 지금은 민가와 밭으로 둘러싸인 좁은 땅에 진공대사 탑비의 귀부와 이수, 삼층석탑 1기만이 남아 있다. 이 탑비의 짝인 승탑 역시 국립중앙박물관 마당에 놓여 있다. 1931년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 간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진공대사 승탑(보물 제365호)은 조각 기법이 뛰어난 팔각원당형 승탑인데, 더욱 특이한 점은 돌함이 딸려 있다는 것이다. 지대석 왼쪽에 놓여 있는 돌함은 경전과 유물을 보관하는 상자로 아주 희귀한 예이다.

02 고달사터 쌍사자 석등

03 진공대사 승탑과 돌함

04 傳 흥법사터 염거화상탑

흥법사와 관련 있는 또 하나의 유물은 傳 흥법사터 염거화상탑(국보 제104호)이다. 이 탑은 1914년 서울 파고다 공원으로 옮겨졌다가 경복궁을 거쳐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마당 진공대사 승탑 옆에 있다. 탑을 서울로 옮길 때 그 속에서 나온 '염거화상탑지'를 보면 "844년 염거화상이 갑자기 돌아가셔 탑을 만들었다."고 한다.

흥법사터에서 섬강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충주에서 내려온 남한강의 물줄기와 만나는 곳에 이른다. 이곳이 고려시대 이래 조창인 흥원창이 있었던 원주시 부론면이다. 지금도 흥원창 자리에 서면, 강 건너는 충북 충주시 앙성면이고 섬강 너머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으로 경기, 충북, 강원 세 도가 만나는 곳이다. 이런 교통의 요지였던 부론면과 문막 일대에는 나말여초에 수많은 절들이 들어선다.
신라 말기는 구산선문이 개창되어 선종이 번성하면서 지방 불교가 발전하던 시기였다. 그 무렵 신라 왕실과 귀족 사회의 혼란은 극에 달했고, 이에 따라 지방 세력이 급격히 힘을 키웠다. 선불교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궤를 함께했다. 원주, 여주를 지나는 남한강 줄기를 따라 크고 작은 절들이 자리를 잡고 고려 초기가 되면 최고의 전성기를 맞는다. 고달사, 법천사, 거돈사, 흥법사 등이 당대 최고의 선승을 모시고 사세를 확장한 것도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쇠락해 가던 이들 절터는 임진왜란 때 교통의 요지를 차지하려는 왜군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만다. 원주 일대에만 100곳이 넘는 폐사지가 있는 까닭이다.

법천사터는 2001년부터 시작된 발굴이 아직 진행 중인데, 2014년 11월 문화재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금당터와 강당터가 발굴되었으며 '쌍탑 1금당' 형식의 사찰이었다. 규모에서도 익산 미륵사나 경주 황룡사와 비견할 만한 큰 절이었다고 한다.
법천사는 신라 성덕왕 24년(725) 창건되어 法皐寺로 불리던 절이었는데 언제 법천사로 바뀌었는지는 기록이 없다.

우리나라 탑비 중 가장 화려한 지광국사 현묘탑비는 고려 선종 2년(1085)에 세웠다. 이 비의 짝인 지광국사 현묘탑 역시 아름답고도 화려하다. 하지만 이 탑 역시 기구한 운명 끝에 지금은 경복궁 서쪽 뜰에 놓여 있다. 1911년 9월 무렵 일본인이 탑을 서울로 옮겨와 다른 일본인에게 판다. 1912년에는 오사카로 밀반출되는데, 당시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반환 명령을 내려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렇게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탑은 많은 상처를 입었다. 한국전쟁 때도 폭발물이 터져 허물어졌던 탑은 1975년에야 손상된 부분을 시멘트로 보완하여 복원하였다. 1995년 중앙청 해체 때 다시 자리를 옮긴 것이 지금 있는 경복궁 서쪽 뜰이다. 손상이 워낙 심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옮길 때도 그냥 둘 수밖에 없었다.

05 지광국사 현묘탑

법천사터를 떠나 20여 분 차를 달리면 수령 천 년의 거대한 느티나무가 지키고 있는 거돈사터에 도착한다. 삼면은 야트막한 산이 감싸고 내가 있는 앞쪽은 트인 거돈사터에 들어서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한편 쓸쓸함도 밀려온다. 신라 말 창건되어 고려 초기에 번성했으며, 조선 전기까지 있었던 거돈사에서 보는 가을날의 석양은 이 풍경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
원공국사(930~1018년) 탑비는 고려 현종 16년(1025)에 세웠다. 고려시대 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글씨라는 비문은 최충이 짓고, 김거웅이 썼다. 탑비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증언이 있지만 언제 옮겼는지는 불확실하다. 짝을 이루어야 할 원공국사 승묘탑(보물 제190호)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와다가 서울로 옮겨간 것을 회수해 1948년에 경복궁으로 옮겼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마당에 있다. 본래 승탑이 있던 자리에는 지대석만 남아 있었는데, 2007년 재현품을 만들어 세웠다.

고달사, 흥법사, 법천사, 거돈사는 비슷한 시기에 창건되어 고려시대 절정에 달했다가 임진왜란을 전후해 폐사가 되는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또한 탑비에 비해 옮기기 쉬웠던 석등이나 승탑이 일제 강점기나 그 후의 혼란기에 원래 있던 자리를 떠나 이리저리 떠돌았다는 점도 같다.
포구나 나루에 드나들던 수많은 배와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라는 거대한 구조물이 들어선 남한강 풍경도 그렇고, 어쨌든 두루두루 쓸쓸한 일이다.

06 원공국사 승묘탑

01 흥법사터 진공대사 탑비

정지된 시간을 지키는 산책자 – 탑비

글 정은정 회원

버티는 것들은 아름답다.
감염된 볼거리와 불가피한 시간 속에서 쩔쩔매고 있었나 보다.
도시의 흔적이 지워진 절터에 서니 허허롭다.
'폐허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근원을 제공하며 우리로 하여금 무위의 상태로 들어가 그 일부를 느끼게 한다.' 는 글귀가 맴돈다. 모든 건축물은 붕괴되기 마련이지만, 그들의 땀과 삶의 이야기는 아마도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

고려는 불교 전래 이래 승려의 사회적 위상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대이다. 승탑과 더불어 '선사의 위엄을 기리고 후대인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탑비를 대대적으로 조성했다. 정치적 통치자인 국왕은 정신적 지도자인 선사들을 극진히 대우하여 탑비 건립을 후원해 주었다.
태조(940년) 때 건립한 흥법사 진공대사 탑비는 마을에 자리를 내주어 작아진 절터를 머릿돌과 받침돌만으로 굳건히 지키고 있다.

짧고 굵은 발을 힘차게 내딛고 있는 거북 받침돌은 용의 머리를 가졌다. 큰 입에 여의주를 물고 울부짖으니 코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얼굴 양옆으로는 갈퀴가 펼쳐진다. 정수리에는 조각을 잃어버린 사각형의 구멍이 남아 있다. 뿔이라면 용의 위용이 더 빛났을 것이고, 갈퀴라면 표정이 더 강렬했을 것이다. 육각형의 거북 등 문양은 안에 연꽃무늬를 장식하고 목 옆에는 '卍'을 새겼다. 등 위에 높은 비좌를 두었으나 주인을 잃은 그 자리는 머릿돌이 내려앉아 있다.
머릿돌은 구름과 어우러진 아홉 마리 용이 압권이다. 중앙에 전서체 '眞空大師'를 중심으로 두 마리 용은 서로 노려보며 혀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데 선 깊은 조각 솜씨가 일품이다. 오른쪽 용의 표정은 왠지 익살스럽다. 윗면의 뭉친 구름 사이에서 또 다른 용 두 마리가 긴 혀를 자랑하듯 뽑아내고, 뒷면 중앙의 용까지 경쟁하듯이 세 개의 혀가 정상의 여의주를 감싸 쥐고 있다. 혀의 움직임을 따라 손이 저절로 여의주에 다가간다. 네 모서리의 용들은 구름을 뚫고 나오는 듯 움직임 또한 화려하다.
준비 없이 만난 흥법사터는 그 자체가 느닷없는 풍경이다. 세월이 화석화된 것처럼 고요는 그 세월만큼 큰 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탑비를 지켜내는 ∞ 모양의 거북 꼬리와 역동적인 용들의 움직임 때문일 것이다.

한가로운 시골길을 달린다. 높은 하늘 나지막한 산 아래 누렇게 익은 벼가 가을의 깊이를 더한다.
혜목산 고달사터. 병풍을 두른 듯 삼면이 완만한 산봉우리에 폭 싸여 있다. 높은 도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수행자들이 모여들었을 그곳엔 지금 공사 관계자들만 남아 있다.
광종(975년) 때 건립한 원종대사 혜진탑비가 눈에 들어온다. 태산 같은 거북 받침돌이 새로운 비신을 이고 있다. 빈자리가 채워졌건만 역사적 기억을 담아내지 못한 왜곡된 풍경이다.
용머리에 치켜 올라간 눈꼬리와 굵은 눈썹, 콧바람을 일으키며 벌름대는 주름새, 입을 가득 채운 큰 이와 양옆으로 솟아오른 갈퀴에서 강한 힘이 보인다. 뚜렷하고 멋스럽지만 완고한 거북 등 아래에 힘차게 내리누르는 네 발이 예사롭지 않다. 단단한 발과 날카로운 발톱은 안정된 자세로 단호해 보인다. 그럼에도 느릿한 걸음으로 금방이라도 다가서며 커다란 송곳니에 묻어 있는 찰나의 웃음을 던질 것 같다. 수줍게 말려 있는 저 귀여운 반전의 꼬리처럼 말이다.
거북 등은 무늬 없는 큼직한 육각형이지만 비좌 주변을 커다란 구름 문양으로 덮어 생동감을 준다. 내려앉았던 머릿돌 대신 비신이 자리하니 비좌의 연화문 장식이 선명히 드러난다.

02 고달사터 원종대사 혜진탑비

03 고달사터 원종대사 혜진탑비 머릿돌 도깨비상

04 고달사터 원종대사 혜진탑비 거북 꼬리

빈 절터에서 마음을 채우다 - 거돈사터

글 계윤애 회원

01 거돈사터 전경

어스름한 빛이 내려앉고 있는 해거름 녘의 빈 절터는 적요하다. 텅 빈 공간의 쓸쓸함이 오히려 평온함으로 안긴다. 한차례 바람이 일더니만 마른 잎이 푸르렀던 여름을 내려놓는다. 여린 싹을 틔우고 무성한 한때를 지나와 소멸을 향해 가고 있다. 호젓한 절터의 느낌과 어우러져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빈 절터에 쌓인 낙엽을 보며 '흥망성쇠'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본다.

거돈사터를 찾아가는 길은 한 폭의 풍경화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담고 있다. 먼 산을 배경으로 조용히 흐르는 남한강의 풍경은 그지없이 한가로워 나른하기까지 하다. 남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거돈사터에 이르면 맨 먼저 높다란 석축 위의 노거수가 눈에 들어온다. 묵묵히 거돈사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지금껏 거돈사터를 지켜 온 천 년 수령의 느티나무다. 그 너른 품에 들어서서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가늠해 본다. 석축 사이의 돌계단을 오르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잘 정돈된 절터가 나타난다.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다.
거돈사는 절터에 남아 있는 삼층석탑의 양식으로 보아 신라 말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누리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그 빛을 잃고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고 전해진다. 당시에는 보기 드문 일탑식 가람 배치를 하고 있다. 절터의 규모로 보아 꽤 크고 화려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며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가 떠오른다.

고층건물 같은 비신 너머 머릿돌이 보인다. 구름 문양과 변화무쌍한 용들이 전액을 향해 부드럽게 엉긴다. 전액 밑을 골똘히 쳐다보니 도깨비상이다. 돌출된 눈에 중앙을 모두 차지할 듯 시원한 코와 입, 이를 드러내고 발톱을 세운 채 정면을 주시하는 모습은 벽사의 위압적인 풍모이기보다는 오랜 친구마냥 반갑다.
탑비를 지키는 받침과 덮개로 천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그들을 바라보며 잊혀진 것들을 생각한다. 살아 있는 침묵으로 불안정하고 불확정적인 우리 삶을 관조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자유롭다.

절터에는 수호신 같은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다. 비워진 절에서 사천왕의 역할을 대신하듯.
지광국사 현묘탑비를 만나기 위해 법천사터 산기슭을 오른다. 주변에는 제자리를 잃은 석조 부재들이 오롯이 모여 있다. 온갖 공력이 담겨진 최고의 탑비 앞에 선다. 선종(1085년) 때 세워진 11세기 대표 걸작이라는데 쉽게 다가설 수 없이 왠지 낯설다.
넓은 지대석에 범접하기 어려운 자태로 앉은 거북은 용머리를 곧게 세우고 목은 비늘로 덮였다. 목 주변에 옷깃 모양으로 두른 비늘무늬와 턱 아래 수염을 길게 내려 용두를 받친 모습이 고고하다. 사람처럼 고른 이를 드러내며 쫙 벌린 입에서는 장인의 위트가 느껴진다. 오른발로 여의주를 움켜쥔 모습과 연결해 보니 더욱 정겹다.
거북 등은 특이하게 정사각형 안에 육각형을 만들고 '王' 자를 양각했다.
비신 상단부에는 천상세계로 보이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 안상을 파고 가운데 잎이 늘어진 커다란 나무를 세웠다. 좌우에는 계수나무 아래 방아 찧는 토끼가 있는 달과 삼족오가 사는 해가 있다. 향로를 들고 있는 비천상과 주변의 구름, 산들도 조화롭게 펼쳐져 있다. 문양 아래에 '贈諡智光國師 玄妙之塔碑銘' 전액을 중심으로 봉황을 새겨 넣어 화려하다.
비신의 측면에는 두 마리 용이 여의주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머릿돌은 솟아오른 귀꽃이 돋보인다. 쭉 뻗은 발로 여의주를 잡고, 입에도 물고 있는 용들이 구름 속에서 현란하게 놀고 있다.
최대 걸작이라는 찬사에 걸맞게 공력과 정성이 깃들어 있음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거북 등의 '王' 자, 비신 측면의 쌍룡, 전액 주변의 봉황 장식은 지광국사가 차지하던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임금에 비견되는 예우를 받았던 고승의 세계관과 고려의 이상 세계는 비신 상단에 불교의 유토피아로 묘사되지 않았을까.
불국토 건설을 지향하던 정지된 시간은 세월을 이기고 우리에게 그 시간의 소리를 들려준다. 이 하늘 아래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은 모였다 흩어져 가는 저 구름 조각이 아닐는지.
그래서 버티는 것들이 아름답다.

05 법천사터 지광국사 현묘탑비

06 법천사터 지광국사 현묘탑비 비신 상단부분

02 삼층석탑

03 불대좌

축대의 중앙에 중문터가 있으며 그 뒤로 삼층석탑과 금당터, 강당터가 남아 있다. 절 중앙에 금당을 앉히고 금당 앞에 삼층석탑을 배치하였으며, 금당 뒤로 문을 내고 긴 회랑을 둘렀다. 금당의 뒤와 옆으로는 강당과 전각들이 자리했던 석축이 남아 있다.

절터로 들어서면 정면으로 삼층석탑과 마주하게 되는데, 간결한 선의 흐름에서 단아한 기품이 느껴진다. 홀로 우뚝 서서 빈 절터의 쓸쓸한 분위기를 한층 더 자아낸다. 신라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널찍한 사각형 축대 위에 흙을 쌓고 그 위에 탑을 세운 점이 특이하다.
지붕돌의 추녀 끝이 살짝 치켜 들려 날렵하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별다른 장식이 없는 소박하고 단정한 모습에 마음이 끌린다.
삼층석탑 앞에는 탐스러운 연꽃이 새겨진 배례석이 있는데, 그 무늬가 어찌나 선명한지 천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다.

삼층석탑 뒤편에는 장대석으로 기단을 올린 금당터가 있는데, 불대좌와 주춧돌만 남아 있다. 부처님을 모셨을 불대좌는 많이 상해서 그런지 그저 평범한 돌덩어리 같아 보인다. 불에 타면서 돌이 깨져서 그렇단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하다. 불대좌의 높이로 보아 금당은 내부가 통층인 외관 이층 건물로 추측하기도 한다.
거돈사의 불대좌는 금당 건물의 거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조선시대 초기 이전에는 금당 안에 일반 신도가 들어갈 수 없었고, 집회 공간으로도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당 안의 본존불이 가운데에 위치했던 것이다.

강당터를 지나 석축 끝에 이르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말쑥한 원공국사 승묘탑이 서 있다. 원공국사의 사리탑으로 원주시와 문화재청이 2007년 제작한 재현품이다.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것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야외 전시장에 세워져 있다. 원공국사는 고려 초기의 천태학승으로 법호는 지종이며, 선불교의 경향을 배척하지 않으면서 천태학을 계승했다는 데 큰 업적이 있다. 89세인 1018년에 거돈사에서 입적하자 현종은 국사로 추대하고 시호를 원공, 탑호를 승묘라고 하였다.
고려 초의 대표적인 승탑으로 신라의 양식을 따랐다. 탑 전체를 섬세하고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하여 더없이 화려하며, 전체적인 비례가 뛰어나 균형미가 돋보인다. 몸돌의 정면에 탑의 이름을 새긴다거나, 모서리마다 기둥을 새기고 꽃무늬로 장식한 것은 고려시대에 들어와 새롭게 시도된 특징이라 한다.
윗받침돌의 도드라진 앙련에서는 묵직한 중량감과 함께 탐스러운 연꽃의 생생함이 그대로 묻어난다. 최고의 정결함으로 사리를 모시고자 했을 마음도 전해진다. 몸돌에는 문, 자물쇠, 살창, 사천왕상 등을 조각하였는데 귀한 사리를 수호하려는 의도를 표현한 게 아닐까 추측해 본다. 지붕돌은 기왓고랑과 처마 끝의 막새까지 세세하게 표현하며 목조 건물을 그대로 본떴다. 서까래의 고르지 않은 선, 암막새와 수막새의 무늬까지 정교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한 점이 감탄스럽다. 승탑의 정교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에 홀려 황홀경에 빠진다.

원공국사 승묘탑을 뒤로하고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원공국사 승묘탑비를 만날 수 있다. 원공국사의 행적을 기록한 비로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비신은 가늘고 날씬한데 머릿돌이 꽤 커서 무겁고 불안정해 보인다. 머릿돌에는 불꽃에 싸인 여의주를 물려고 다투는 용의 모습을 새겼는데 무척 사실적이며 역동적이다. 사납게 눈알을 부라리고 입으로 불길을 내뿜으며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다. 받침돌의 거북 등에는 정육각형의 귀갑무늬 안에 王 자와 연꽃무늬, 그리고 卍 자가 교대로 새겨져 있다.

절터를 둘러보고 난 뒤 석양빛에 물든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다시금 빈 절터를 바라본다. 지나는 바람결에 나뭇잎만 흩날릴 뿐 빈 절터는 깊어가는 계절과 함께 더없이 적막하다. 때로 눈에 보이는 형상이 그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다. 눈을 감고, 주춧돌만 남은 빈 자리에 있었음 직한 전각들을 세우고 향을 피운다. 검게 그을린 불대좌에 곱게 연꽃을 새겨 부처님을 모시고, 불경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영광스럽던 거돈사의 한때를 그려 본다. 다시 눈을 뜨면 거돈사는 그곳에 없다. 하지만 거돈사는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비어 있을 뿐이다. 빈 절터에서 지금껏 떨쳐 내지 못하던 산란한 마음을 비운다. 마음자리가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는 기운을 느끼며 절터를 나선다.

04 배례석

폼페이: 과거와의 대화

글 조은정 목포대학교 교수

01 이탈리아 지도(부분)

세계 3대 미항으로 꼽혀 온 이탈리아 나폴리 항의 남서쪽에 위치한 고대 도시 폼페이는 비극적인 운명으로 인해서 널리 알려져 있다. 베수비오 산기슭에 안락하게 자리 잡았던 이 소도시는 로마 제국 내에서 인기 있는 휴양지로서 번영을 구가했지만, 서기 79년 화산 폭발로 인해서 순식간에 매몰되었던 것이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는 『자연사(Natural History)』의 저자이자 장군으로 유명한 대 플리니우스(Pliny the Elder)의 운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대 지중해 문화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을 수집해서 백과사전으로 편찬했던 이 박식한 인물은 당시 해군 함선을 이끌고 나폴리 항구에 정박해 있었는데,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쾌속선을 타고 현장에 접근했다가 화산재를 마시고 급사했다.

그의 조카 소 플리니우스는 숙부와 동행했던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이들은 사방에 떨어지는 바윗돌들을 피하기 위해서 베갯보와 냅킨으로 머리를 감싸고 밖으로 나왔다. 이때는 낮이었지만 한밤중보다도 더 칠흙같이 어두웠기 때문에 횃불을 들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배를 띄울 수 있는지 보려고 해안가로 내려왔으나 파도가 매우 높고 거칠었다. 내 숙부는 사람들이 깔아준 천에 몸을 눕히고 냉수를 청해 마셨다. 하지만 곧 뜨거운 유황 냄새와 화염이 퍼져서 급히 그 자리를 피해야만 했다. 그는 두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났지만 곧바로 쓰러져서 숨을 거두었다. 독한 증기 때문에 질식했던 듯하다. 숙부는 언제나 목이 약했고 자주 질환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 슬픈 사건이 일어난 지 삼일 째가 돼서야 날이 밝아져서 그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는데, 몸에 생채기 하나 없이 당시에 입었던 옷 그대로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다." 대 플리니우스의 호기심과 용기(혹은 무모함)가 결국 그를 때 이른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그뿐 아니라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 스타비아이 등 인근 휴양도시에서 생활하던 그 누구도 자신들의 세계가 이처럼 순식간에 몰락할 줄은 짐작조차 못 했을 것이다.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은 이후 약 1700년 가까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가 18세기 중반에 우물을 파던 한 남자가 우연히 재발견했다. 뒤이어 진행된 대규모 발굴 사업의 성과로 이 도시의 유적들이 빛을 보게 되면서 유럽 사회 전역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에 대한 열광적인 관심이 일어났다. 사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서구 미술과 문학 분야를 휩쓸었던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운동의 저변에는 이 고대 도시의 모습과 유물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던 예술가들의 상상력과 동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도 폼페이는 영화와 소설 등 대중문화에서 끊임없이 재활용되는 인기 소재이다.

고대 로마의 찬란한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도시 유적들 중에서도 폼페이가 후대인들에게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화산재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마치 타임캡슐과 같이 특정 시간 속에 갇혀 버리게 된 덕분에 당시의 일상생활이 생생하게 보존되었다는 데 있다. 고대 벽화와 모자이크, 청동 식기, 대리석 흉상, 유리 장신구 등은 어느 박물관에서나 흔히 마주하게 되는 유물들이지만 너무나 많은 수집가와 거래자들의 손을 거쳐 오면서 원래의 시공간으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에 관람자들은 이 유리 전시관 속의 물건들이 실제로 삶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러나 폼페이의 유적과 사건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대 로마 시민이 목격했던 광경을 함께 목격하고, 그들이 느꼈던 희로애락을 함께 느끼게 된다. 시공간을 관통하는 이러한 공감이야말로 고고학적 유물을 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알렉산드로스 모자이크〉라고 불리는 유명한 유물이 대표적인 예이다. 기원전 333년 이수스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와 그리스 군대가 다리우스 3세의 페르시아 군대를

02 **알렉산드로스 모자이크**,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

03 **카를 브룰로프, 폼페이 최후의 날,** 러시아 국립박물관

04 **베티우스 가의 저택,** 폼페이

05 **CAVE CANEM 모자이크,** 비극 시인의 저택 현관 바닥, 폼페이

공격하는 장면을 묘사한 이 모자이크를 책이나 인터넷 등에서 독립된 도판으로만 접하는 이들은 특별한 감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을 방문해서 벽에 부착된 이 거대한 모자이크를 직접 마주한 이들이라면 물론 인물의 동세나 감정 표현이 생생하고 갑옷과 전차, 무기 등의 고증이 훌륭한 데 대해서 감탄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제작된 당시 로마인들의 입장이나 관점에 공감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 모자이크 작품을 원래의 자리, 로마인들의 삶 속으로 돌려놓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알렉산드로스 모자이크〉는 소위 '목신의 저택(House of the Faun)'이라고 불리는 한 개인 저택에서 발견되었다. 이 저택은 폼페이의 대저택들 중에서도 예외적일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아트리움 응접실을 중심으로 침실과 식당, 작업실 등이 주변에 배치되는 일반적인 도시 주택과 달리 로마의 전원 저택에서는 열주랑으로 에워싸인 정원이 안쪽에 자리한다. 널찍하게 트인 정원은 빛과 공기가 통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이는 인공조명이 제한되어 있던 고대 사회에서 흔히 누리기 어려운 사치였다. 목신의 저택에는 이러한 정원이 두 개나 있어 당시 집주인의 부유함을 짐작할 수 있다. 열주랑 안마당은 그리스와 소아시아의 헬레니즘 왕국들에서 먼저 번성했던 양식으로, 로마 공화정 말기에 본토로 유입된 호화로운 헬레니즘 문화의 유산들 가운데 하나였다. 폼페이는 수도 로마 시와 비교해서 향락적인 분위기가 강하여,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풍의 로마 지도층 인사들도 이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공화정 말기 수도 로마에 비해서 폼페이에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알렉산드로스 모자이크〉가 배치된 공간은 첫 번째 정원과 두 번째 정원 사이에 있는 작은 부속실 바닥이다. 로마 저택에서는 현관과 아트리움 응접실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내밀한 성격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부속실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주인과 친분이 특별히 깊은 귀빈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속실의 바닥 전체를 덮었던 모자이크화는 주인 가족들과 엄선된 방문객들에게만 허용된 귀한 감상품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다면 공화정 말기 로마 귀족에게 과연 '알렉산드로스'라는 타국 영웅의 무용담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지, 모자이크라는 쉽지 않은 재료와 기법으로 이처럼 정교한 회화 작품을 재현해야 했던 장인들의 고충은 얼마나 컸을지,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노동의 대가로 그들이 얼마나 받았을지 등등 다양한 질문들이 꼬리를 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호기심이야말로 과거의 유물과 현재의 관람자를 이어 주는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소위 〈개 조심 모자이크〉라고 불리는 바닥 모자이크 또한 폼페이 인들의 일상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폼페이 사회에서 중산층 계급이 살았음 직한 한 작은 주택의 현관 바닥에 배치된 이 모자이크는 사슬에 묶여 있는 사나운 검정색 개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한 것으로, 하단에 '개를 주의하시오(cave canem)'라고 적혀 있다. 출입구 벽이나 바닥에 맹견을 그려 넣는 것은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관례로 알려져 있는데, 폼페이 유적뿐 아니라 로마 제정 초기의 소설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로마 인들이 어떠한 목적에서 이러한 바닥 장식을 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도 불청객을 막기 위한 심리적 장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06 **HAVE 모자이크,** 목신의 저택 대문 바닥, 폼페이

이와 정반대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목신의 저택 대문 바깥쪽 바닥 모자이크이다. 'HAVE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히 가세요)'라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데, 마치 우리 시대의 현관 매트에 WELCOME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더욱 친숙하게 느껴진다. 목신의 저택은 대문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친밀한 인사를 받는다고 해도 쉽게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겠지만, 당시 이 저택 앞을 지나치거나 방문했던 폼페이 시민들의 느낌이 어떠했을지 쉽게 짐작이 간다.

이처럼 일상생활의 소소한 장면들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유물과 유적들을 접함으로써 우리는 약 2000여 년의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중해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했던 공화정 말기 로마 인들의 삶에 동참하게 된다.

블루 & 화이트

글 강현자 회원

01 매화 새 분재무늬 항아리,
삼성미술관 리움

비 갠 가을 하늘빛을 닮은 파란 그림이, 투명하리만치 맑고 흰 백자 위에 피어 있다. 블루 & 화이트, 바로 청화백자다. 김환기 화백은 "한국의 하늘과 바다는 지독히 푸르고 맑아서 흰 수건을 적시면 푸른 물이 들 것 같다."고 노래했다. 청화백자에 흰 수건을 적시면 그대로 푸른 물이 들 것 같다. 아니, 내 마음을 적셔 푸른 물을 들이고 싶다. 흰빛과 푸른빛의 어울림이 눈이 부시다. 청화백자의 희고 푸른 청초함이 내 가슴을 노크한다. 그리운 사람을 문득 만난 것처럼 가슴 설렌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 마당에 나가 보면 아무도 없고, 거기 파란 가을 하늘만 눈이 시리게 웃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도슨트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청화백자는 중국 원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다. 이슬람의 유리나 도기 등에 사용되던 코발트 안료를 중국 장인들이 백자 그림에 처음 적용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도 조선 초기에 청화백자를 생산하게 된다. 800도에서 초벌구이를 한 백자 위에 코발트 안료로 그림을 그린다. 일필휘지로 그려야 번짐이 없다. 그리고 그 위에 유약을 바른 다음 1,300도에서 굽는다. 흑갈색인 산화 코발트는 1,300도의 높은 온도를 이겨내고 신비스러운 청색 빛깔로 화려하게 살아난다.

〈매화 새 분재무늬 항아리〉 앞에서 잠시 숨이 멎는다. 푸른빛의 매화와 두 마리의 새 그리고 백자, 그들의 어울림을 무어라 형언할 수 있을까. 빛의 상징인 흰색은 어둠을 몰아낸다고 한다. 어둠을 몰아낸 흰빛으로 완벽하게 터를 이루고 그 위에 푸른빛으로 그림을 앉힌 이 항아리가 가슴을 먹먹히 흔든다. 맑고 깨끗한 아름다움이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와 영원히 흐르고 있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수백 년을 지켜 온 청화백자의 역사가 말해 주는 끈이기에. 그것은 결코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있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 〈조선청화, 푸른빛에 물들다〉를 보면서 관계의 어우러짐에 대해 생각해 본다. 청화백자가 가슴 설레도록 아름다운 것은 백자 때문만도 아니고 푸른 그림 때문만도 아니다. 그들의 조화 때문이다. 그들의 어울림 때문이다. 그들의 관계가 참으로 경이롭다. 하얀 바탕에 푸른 청화 색상이 어우러진 화려함과 정결함, 청초한 푸른 색상과 순백의 바탕과의 어울림, 청화의 흐름과 자기의 선과의 어우러짐, 매화를 품고 있는 가을 하늘빛의 조화. 그것들의 오묘한 조화가 여기 300여 점의 청화백자와 함께 어우러져 우아함의 깊이를 더해준다. 청화백자는 별과 함께한 것도 아닌데 빛이 난다.

청화백자는 조선 왕실이나 사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고급 그릇이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했다. 그래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을 국보인 도자를 깨뜨리는 어리석음에 빗대기도 한다.
경기도 광주 관요에서 발견된 깨진 청화 조각 앞에서 잠시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본다. 사람을 얻고 버리는 일을 두고도 옛 어른들은 귀한 청화백자를 깨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말에 비유했다.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청화백자 다루듯 하라는 말씀이다. 조각이 된 청화가 그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듯하다. "화가 난다고 귀한 청화백자를 깨뜨려서야 되겠느냐?" 청화의 조각칼이 가슴을 베고 지나가듯 호령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청화 조각을 보며 생각한다. 이미 깨지고 남은 이 조각은 지금 청화로 살아 있다. 그것은 이 조각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뜻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하다. 이 조각들이 '천마무늬 뚜껑 조각'이며, '매화 대나무무늬 항아리 조각' 등의 이름을 달고 또 다른 의미의 청화백자로 태어난 것을 보라. 역사가 퍼즐이 되어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지 않은가. 사라진 부분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사금파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 남아 있는 것이다. 나름의 의미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조건 전기 왕실의 전유물이던 청화백자는 조선 후기 분원이 민영화되면서 사대부와 재력을 갖춘 중인들까지 널리 향유한다. 그들은 격조 높은 정신과 풍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청화백자에 담는다. 문인들의 사군자와 산수, 꽃, 인물, 동물 등의 그림과 시가 청화백자 위에서 피어난다. 모란과 새, 잉어, 복숭아, 연꽃 등 복과 부귀, 출세를 의미하는 길상의 무늬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민화풍의 그림인 십장생, 용, 봉황 등 장수와 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소재들도 등장한다. 조선 전기 왕실의 청화백자 무늬는 궁중의 도화서 화원이 그렸으나, 민영화가 되면서부터는 분원의 화청장이 그림을 담당한다.

02 매화 대나무 새무늬 항아리,
국립중앙박물관

03

04

05

03 매화 대나무무늬 뚜껑 조각,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04 매화 대나무무늬 항아리 조각, 국립중앙박물관
05 천마무늬 뚜껑 조각,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청화백자는 중국과 유럽에 의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 세계는 앞다퉈 도자의 생산자가 되려 한다. 일본도 임진왜란 때 조선 도공들을 데려가 17세기부터 유럽에 수출하면서 도자 강국으로 우뚝 선다. 조선은 유교 왕조의 무역 억제 정책 탓으로 백자와 그림의 품격이 중국 그릇보다 월등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로 진출하지 못하고, 19세기 말 일본의 도자산업에 흡수되고 만다.

청화백자 역사의 비극을 들으면서 다시 깨진 청화 조각 앞에 선다. 비극은 우리의 것이었을 뿐 깨진 청화 조각이 아픈 것은 아니다.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청화백자 그릇은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담아내고, 깨진 청화 조각은 깨진 부분으로 남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비록 깨짐이 지나간 것이라 하지만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자 할 때, 또한 변하는 가운데서도 될수록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자 할 때, 아픈 과거도 추억으로 살아나고, 역사로 살아난다. 아픔이 얼마만큼의 진실이 되어 있는지를 깨달을 일이다. 미완은 언제나 가능성을 안고 있기에.

청화백자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될 때까지. 한 조각의 청화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보았다. 그것은 내가 무얼 찾고 있는지 알려 주었다. 나는 깨진 사금파리만 봐도 미소 짓게 되리라. 청화 조각이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 줬으니까.

06

07

08

06 보상화 넝쿨무늬 병, 국립중앙박물관
07 산수무늬 산모양 붓꽂이, 국립중앙박물관
08 매화 대나무무늬 병, 국립중앙박물관

01 소상팔경도 어촌석조 부분, 국립진주박물관

산수화 속으로의 여정, 그중 하루

글 유건집 회원

지난 7월부터 전시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산수화, 이상향을 꿈꾸다〉는 나에겐 좀 특별한 전시였다. 농촌에서 유년을 보낸 영향인지 몰라도 철이 들면서 산야에 뛰놀기를 좋아했고, 학창 시절에는 동양적 산수를 그리워했다. 그동안 단편적인 산수화의 명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이번처럼 동양 삼국의 대작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기에,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 전시의 의도는 청정한 이상적 산수 속에 노닐고 싶은 인간 욕망의 표현인 명품 산수화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그들 사이에 연관된 모티브를 찾으려는 것이지, 표현의 기법이나 미술사적 의미를 주제로 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니 六法이니 皴法들을 떠나 현실 세계, 자연, 꿈으로 대변되는 없으면서도 있는 듯한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도 말이 아닌 붓으로 표현한 것이니 먼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머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구경할 곳이 많으면, 맛 좋은 음식이 많을 때처

럼 행복감을 느낀다. 더구나 대상이 오랫동안 꿈꾸던 이상적 세계라면, 두말이 필요치 않다. 이럴 때 범하기 쉬운 오류가 차분히 대처하지 못하여 그 작품 속에 내재된 핵심적 정신을 놓치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화면 밖에서 보지 않고, 화폭 속으로의 여행을 시도했다. 그 속의 경관은 물론 인물들과도 만나고 싶었다. 도원에 이르는 것은 緣이 닿지 않으면 불가하다 하지 않았던가. 仙緣, 이는 나 같은 사람에게 과분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시공을 이동한다는 것도 꿈 같고, 호기심도 강해져서 용기를 내었다. 나는 곧 武陵桃源을 찾아간 魚舟子가 되기로 했다.

전시 기간 동안 가능한 한 여가를 내어서 한 달 여의 긴 旅程을 끝마쳤다. 하루 한 곳이 원칙이었으나 어떤 날은 두세 곳씩 들르기도 했다. 불편한 것이라면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墨跡과 색감을 읽기가 힘든 곳도 있었지만, 그림 속의 세계에서는 별로 문제 되지 않게 작자의 意趣를 찾을 수 있었다. 13세기 후반 趙蒼雲의 〈劉晨阮肇入天台山圖〉부터 21세기 장욱진의 〈풍경〉까지 수십 점인데, 그 대부분은 팔경, 구곡 등 연작으로 하나하나의 작품 수는 150여 점을 상회하는 방대한 수량이었다. 특히 이인문의 〈江山無盡圖〉에서는 무려 삼박사일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다. 이처럼 긴 여정에 많은 얘기를 담았으나, 이번에는 지면상 한 작품만을 발췌하였다.

이번에 전시된 '소상팔경'은 송대 夏珪의 〈山市晴嵐〉 한 폭부터 文徵明의 작품, 16세기 전반에 그린 작자 미상의 작품(국립진주박물관), 또 하나의 유사한 작품, 그리고 李澄의 작품,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한 16세기 초 相阿彌(소아미, 일본)가 그린 12폭의 이어진 그림 등이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여덟 곳을 다른 작가의 작품 속으로 고루 여행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국립진주박물관 소장인 어촌의 저녁 풍경을 그린 〈漁村夕照〉라는 작품이다. 세로 91cm, 가로 48cm의 종이에 먹으로 그렸고, 安堅風의 短線點皴을 많이 써서 사물의 형상묘사(應物象形)에 뛰어난 작품이다.

푸르름이 목이 말라 구름을 다 삼키고 가을이 나무를 타고 오르는 계절에, 나는 신록의 강마을로 들어간다. 신발을 다잡아 신고 그림의 오른쪽 하단부로 발을 들여놓았다. 기암 사이의 언덕길을 오르노라면, 양쪽에 柵을 친 정갈한 집들이 섰고, 虎口처럼 생긴 언덕 위에는 관목 세 그루가 암반 위에 뿌리내려 오랜 연륜을 말해 준다. 나무 아래로 돌아 내려가면 물가에 버드나무가 있는 집 하나가 얌전히 앉았는데, 이제 막 집을 나선 어부는 "창랑의 물 맑으면 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 흐리면 내 발을 씻겠네.(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라고 노래하며 그물을 걷으러 간다고 했다. 역시 屈原의 충절의 넋이 이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음을 느꼈다. 또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는 사립을 쓴 두 사람이 그물을 당기느라 힘을 쏟는 것으로 보아, 고기가 꽤 많이 잡힌 모양이다. 그리고 저 멀리 마을 앞 물가에 기둥을 꽂고 그물을 친 것이, 밖에서 볼 때는 화가가 일필로 간략히 처리했는데, 실제로 와 보니 상당히 길게 쳐놓은 것이었다. 참으로 평화로운 곳이다. 이 세상엔 주인이 따로 없다. 모두가 주인이기도 하고, 모두가 객이기도 하다. 때로는 바람이 주인이 되어 새와 구름에게 시를 읊어 주기도 하고, 혹 새가 주인이 되어 아름다운 소리로 주변을 기쁘게도 한다.

오른쪽 숲과 안개에 싸인 강 마을에는 酒旗 두엇이 바람에 나부끼고, 몇몇 지붕만이 연기 속에 보인다. 집 옆 오르막 계단을 얼마간 오르면 숲 속에 길이 둘인데, 아랫길은 강 마을로 가고 윗길은 고개 너머 사원으로 통한다. 오후의 강 마을엔 옹기종기 집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깃발 있는 집 앞에 이르니, 주모인 듯한 중늙은이가 반색하며 평상 위에 앉으란다. 곧 술 한 주전자와 술국에 乾魚脯 두어 마리가 함께 나왔다. 이곳에서는 고기를 잡아 볕에 말려 먼 곳으로 가서 곡식과 바꾸어 온다고 한다. 술잔을 다 비우고 더없는 충만감에 기우는 햇빛을 등지고 등성이를 넘어 산사로 향했다. 좀 늦었지만 저무는 사원의 경관을 놓칠 수 없었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과 불이문을 거쳐 이층의 樓門에 이르니, 뒤쪽의 危峰들은 위엄 있게 솟았고 그 뒤 먼 첨봉은 아련히 푸르다. 순간 木月의 시 〈청노루〉 속을 산책하는 듯했다. 누문을 지나 계단을 오르니 고색창연한 大光明殿이 아름다운 단청을 입고 섰다. 전면 다섯 칸, 측면 세 칸의 다포집에 둥근 기둥들이 팔작지붕을 머리에 이고 버티고 서 있었다. 마침 불전에서 나오는 노스님을 따라 방장실에 이르니, 미륵 같은 相好에 미소를 머금고 맑은 차 향기로 인사를 대신한다. 인위적 정돈이나 고요가 아닌 자연이 숨 쉬는 리듬과 바람 불고 구름 흐르는 듯한 분위기다. 작은 경상 위에 두어 권의 경서와 필기구, 그리고 다관과 잔이 있을 뿐이다. '무슨 인연이 닿아 이렇게 찻자리를 함께 하는지'를 생각하며 말없이 일어나 합장으로 작별했다.

산문을 나서 앞을 바라본 경관은 언어를 넘어선 감개와 찬탄이 있을 뿐이었다. 앞으로 멀리 보이는 산마루엔 반쯤 잠긴 저녁 해가 마지막 순간을 불사르고, 그 위로 떠가는 구름은 말을 잊게 했다. 화가가 담묵으로 적당히 처리한 그 그림 속에 이 같은 경이로운 아름다움과 말문을 막는 玄虛한 세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500여 년 전에 어떤 예술가가 설계한 별천지에, 이 나그네가 다녀가는 것도 宿緣이 아닐까. '이 속에 참다운 뜻 있으니,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구나.(此間有眞意 欲辯已忘言)'

입구에 이르니 뒤로 산사의 저녁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02 소상팔경도 어촌석조, 국립진주박물관

사람이 만들고 시간이 완성한다

글 하경미 회원

올해 박물관 특설강좌에서 두 학기에 걸쳐 우리나라 고대사로부터 일본, 중국, 몽골, 인도 등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끼친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박물관 특설강좌는 오랜 외국생활에서 귀국한 뒤 꼭 접해보고 싶었던 것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몇 해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올해 거의 마감 직전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결석하지 않고 답사도 다 가보겠다는 소박하지만 결의에 찬 바람으로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4월초 사고를 당해 3주를 결석할 수밖에 없어서 세상만사가 그리 녹록하지 않음을 다시 실감하기도 하였다.

강좌를 들으면서 나의 단단한 머리를 때렸던 첫 번째 강의는 전경수 교수님의 '인류와 문화'였다. 강의의 핵심은 '인간에 관한 정의'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문화인류학자로서 본인이 여러 문화형태에서 직접 생활하며 체득한 사례들도 재미있었지만, 전라도 지방과 경상도 지방의 수명을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실 때에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그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까지 이어지는 체면, 사회적 규범, 도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혹사하는 삶을 최선으로 알고 살아왔던 "꼴통" DNA를 새삼 실감했다. 스스로의 흥에 취하고 즐기며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나는 더욱 요원할 뿐이라는 씁쓸한 자각 또한 하였다.

01 **이층롱**, 국립중앙박물관

02 **반닫이**,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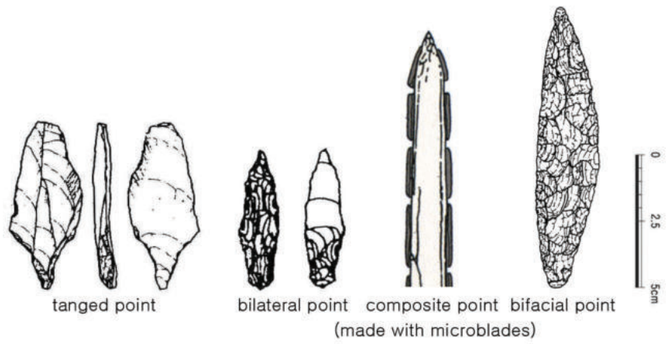
나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더욱 흥미롭게 집중할 수 있었던 수업도 있었다. 2학기 과정 중 '조선가구' 강의이다. 조선가구라는 명칭으로 분류되는지도 몰랐던 내 유년의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는 엄마의 농, 함 그리고 반닫이. 그것들은 언제나 안방에 있어서 내가 만져보고 열어보고 그 속에 뭔가를 넣어두기도 했던 집의 일부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그 가구들은 내가 자주 볼 수 없는 올케네 집, 작은 언니네 대청마루로 옮겨가 부모님과 함께 아련한 추억이 되어 버렸다. 우연히 골동품 가게에서 엄마가 시집오실 때 혼수로 해 오셨던 것과 같은 백통 나비장식 이층롱을 발견했을 때 엄마를 다시 본 듯 온몸이 떨렸다. 양 문을 열면 나타나는 수줍은 듯한 속 미닫이와 백통 자물쇠까지 온전한 그 농을 두고 도저히 돌아설 수 없어서 내 평생 처음으로 과한 소비를 하고 말았다. 합리적인 소비나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는 본능적인 끌림으로 그 농을 들이던 날, 내가 우리 엄마의 셋째 딸이기에, 언젠가 내가 가고 없는 그날에 나의 셋째 딸에게 이 농을 물려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엄마가 손수 놓으신 자수가 양옆에 장식으로 들어간 아버지의 목침에서 자수를 떼 내어 표구를 해서 그 농 위에 걸어두었다. 오늘도 나는 그 농 앞에 서 있기도 하고 어루만져 보기도 하며 부모를 추억하고 내 지나간 시간들을 만나기도 한다. 교수님께서 명품은 "사람이 만들고 시간이 완성해 준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시간 속의 기억이 진정한 명품을 만들어 주는 거라 덧붙이고 싶다.

종강할 때까지 나는 화요일이면 분주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박물관을 찾을 것이다. 일 년에 몇 번으로 그치던 전시실 관람도 친근한 마음으로 자주 할 것이고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심화강좌인 박물관 연구강좌도 계속 듣고 싶다. 이 모든 것이 박물관 특설강좌 덕분이다.

후기 구석기시대 MIS3에서 MIS2까지의 한국과 일본 간의 인류 행동과 석기 제작 기법

글 장용준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

Human activity and lithic technology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MIS 3 to MIS 2 in the Late Paleolithic perio



01 슴베찌르개(박편천두기), 각추상석기, 조합식 찌르개, 양면조정 찌르개

동해를 중심으로 한반도, 일본 열도, 중국 동북부, 러시아 극동지역과 사할린이 위치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지역들의 후기 구석기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생인류의 출현과 확산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고, 문화적으로 어떤 유사성을 지니는지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즉, 각국의 개별 연구가 아닌 인접지역 간의 상호 영향과 계통 관계, 지역간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지역들의 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주요한 고고유물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반도를 포함한 후기 구석기문화의 성립 배경은 물론, 그 과정에 대한 지역별 비교 검토와 환동해안 주변의 새로운 문화권을 밝히고, 특정 문화가 일방적인 전파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점

02 밀양 고례리 유적의 슴베찌르개, 석인 관련 부산물의 집합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환동해안 지역의 지형학적 이해

한반도를 비롯한 일본 열도, 연해주로 둘러싸인 환동해안 지역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양 산소 동위원소에 따른 MIS3의 늦은 시기에서 MIS2(4만~1만 5천 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문화적 특징은 뚜렷한 지역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에는 빙하기가 가장 발달하여 추웠던 최대 빙하 극성기(Last Glacial Maximum)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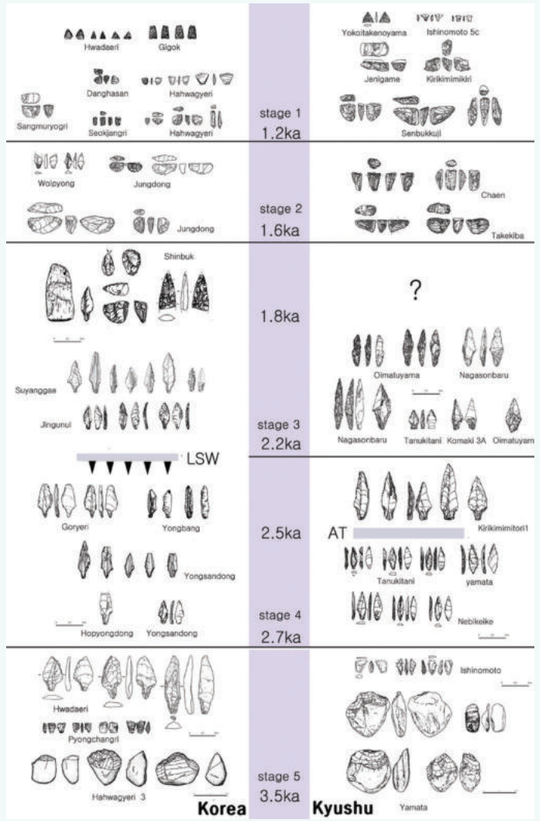
환동해안 지역에서 후기 갱신세 늦은 시기의 해수면 변화는 인류 이동을 야기시킨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 지역은 한반도와 일본 규슈(九州), 일본 규슈와 혼슈(本州), 혼슈와 홋카이도(北海道),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할린과 유라시아 대륙이 해당된다. 후기 구석기시대 동안에 이 지역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에 의해 해협을 건널 수 있기도 하고, 건너지 못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배가 없었기에 해수면이 낮은 해협을 통한 일시적인 이동은 바다를 건너 다른 지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러한 환동해안 지역의 해협들은 수심에 차이가 있어, 이동이 가능했던 시기와 단절되었던 시기의 차이가 생기기도 하였다. 특히 해수면이 낮아지면 일부 해협에는 육교(陸橋)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육교는 기후가 따뜻해지면 사라지기를 반복하였다.

2. 한국과 일본의 석기 제작 기법

일본은 후기 구석기시대 이전에 사람이 살았는지가 확실치 않다. 환동해안 지역의 석기 비교는 일본 열도에 인류가 최초로 살기 시작한 경로와 시기를 파악하는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일본 후기 구석기 출현은 한국의 후기 구석기에 밀접한 영향을 받았다. 현재까지 한국을 제외한 현생인류의 유입 루트는 없다. 즉, 일본 열도 최초의 현생인류는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던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현생인류의 흔적들은 동북아시아의 후기 구석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의 후기 구석기시대에는 석인(石刃) · 세석인(細石刃) 기법과 같은 격지 제작 기술이 발달하였다. 두 지역 사람들은 기술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석인기법의 활용, 인부마제석기의 사용, 한반도의 슴베찌르개와 일본 규슈 지역의 박편첨두기의 공유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환동해안 지역에서는 모두 세석인기법이 확인된다.



03 한국과 일본 규슈지역의 석기군 비교

3. 환동해안 지역의 독특한 석창 문화

일본 열도의 석인기법 성립에 관해 기존 석기군에서 발전 · 계승한다는 입장과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현생인류가 어디로부터 도래했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한반도 후기 구석기 초의 석인석기군은 물론, 중국 동북지역의 석기군, 극동지역의 우스티노프카 7유적의 하층에서 출토된 석인석기군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현재까지 석인기법으로 만들어진 슴베찌르개(剝片尖頭器)는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였다. 이 석기는 한반도에서 일본 규슈 지역을 거쳐 일본 본토까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이것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도 출토되었다.

한편, 일본 열도 내에서도 독자적인 수렵 도구가 출현하였다. 대표적인 석창이 박편첨두기, 각추상석기, 나이프형 석기 등이다. 무엇보다 후기 갱신세 늦은 시기의 고유한 수렵 문화는 각 지역의 환경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환동해안 각 지역에서는 독창적인 석창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예로 한반도 주변지역은 슴베찌르개(박편첨두기) 문화, 일본은 나이프형 석기 문화와 창선형 첨두기 문화, 홋카이도지역은 유경(有莖) 첨두기와 창선형(槍先形) 첨두기 문화, 극동지역은 박편 첨두기와 창선형 첨두기 문화가 있다. 이 지역들은 석기 제작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석기형식도 제작하고 있어 환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이동경로, 즉 후기 구석기인의 루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4. 세석인으로 만든 결합식 찌르개와 인부마제석기(刃部磨製石器)

동북아시아에 널리 사용된 유우베츠(湧別) 기법은 시베리아를 기점으로 한 한반도 전역, 일본 열도의 규슈지역을 제외한 전역, 러시아 극동지역과 사할린지역까지 분포하는 세석인기법의 한 종류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우베츠 기법이 확인되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후기 구석기시대의 현생인류가 넓은 지역에 걸쳐 하나의 석기 제작 기술을 공유하고 도구를 제작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

인부마제석기는 연해주, 한반도 남부, 일본 열도 전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출토되었다. 특히 환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3만 년 전 인부마제석기가 일본 열도에서 처음 출토되었다. 이는 선사시대는 물론, 구석기시대의 마제석기 문화의 기원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5. 인류의 활동과 흑요석의 사용

인류의 이동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흑요석 원산지를 중심으로 석재의 교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일본 열도에서는 광범위하게 산재한 흑요석 원산지로부터 수급된 흑요석을 이용해 일본 특유의 석기를 다량으로 제작하였다. 실제 일본에서 확인된 구석기 유적은 15,000곳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자원을 개발하듯, 후기 구석기인들도 석기 제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흑요석을 비롯한 다양한 석재 원산지를 적극 개발했던 것이다.

04 환동해안 지역의 흑요석 네트워크

홋카이도산 흑요석은 사할린의 소콜 유적, 도린스쿠 1유적에서까지 발견되었다. 일본 규슈산 흑요석은 한반도 남부지역과 혼슈, 백두산 흑요석은 한반도와 극동지역의 주요한 석재로 사용되고 유통되었다. 흑요석을 석재로 이용하는 현상은 환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징적인 석기 양상이었다. 무엇보다 흑요석은 원산지로부터 사용지까지 이동될 경우 500km 범위를 대체로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백두산 흑요석은 현생인류의 한반도 내 확산과 맞물려 800km라는 넓은 지역까지 확산되었다.

6. 맺으며

환동해안 지역의 다양한 석기군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특정 지역에서 시작한 석기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일방적 문화전파의 결과만으로 볼 수 없었다. 특정 지역에서 시작한 석기 문화는 확산되더라도 해당지역의 기술 수준과 석재 수급의 상황에 맞춰 현지화 과정이 일어났다. 이러한 과정 속에 형성된 환동해안 문화권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후기 구석기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환동해안 지역의 석기 문화권은 중국 남부지역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심사평_ 이선복(서울대학교 교수)

논문의 내용은 대략 4만에서 1만 년 전 사이에 걸쳐 주로 남한과 서일본 지역에서 보이는 석기 형태, 제작기술, 원료이용 양상을 비교해 각지에서 독자적인 문화상이 확립되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렇게 큰 지역적 스케일로서 자료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동북아시아의 후기 구석기시대 전체적 양상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이 이 논문이 지니는 큰 학술적 가치라고 하겠다.
한국 자료의 연대나 층위 해석에서 단순한 관점에 나름의 비판과 일본 자료를 보다 폭넓게 파악하였다면 이 글의 가치는 더욱 빛났을 것이다.

심사평_ 김재홍(국민대학교 교수)

본 논고는 후기 구석기시대에 한국, 일본, 연해주를 둘러싼 환동해안지역을 대상으로 인류 행동과 석기 제작기법을 분석한 연구로서 개별 국가 단위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기초로 인접지역 간의 상호 영향과 계통 관계 등 지역 간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 석기 제작 기술을 통해서 본 석기문화의 독창성, 인류의 이동과 행동 등을 고려하면서 환동해안문화권을 설정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의 후기 구석기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한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특정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후기 구석기시대의 문화상을 거시적 시각에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앞으로 전체 시각에서 개별적인 연구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환동해안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이다.

2015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계획

구 분	전시제목	전시기간
기획전	고대 로마 도시문화와 폼페이	'14. 12. 9 - '15. 4. 5
	르네상스 미술전	5. 1 - 8. 30
	용산개관 10주년 고대불교미술대전	9. 25 - 11. 15
	에르미타쥬박물관전	'15. 12. 15 - '16. 4. 10
특별전	체코 보헤미아의 유리	2. 9 - 4. 26
	불교미술과 발원	5. 23 - 8. 2
	일본무대예술 노가쿠의 세계	9월 - 11월
테마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국탁본	'14. 12. 15 - '15. 3. 15
	낙랑 석암리 194호	2월 - 12월
	인도의 신과 예술	4월 - 6월
	진리의 구현과 영원, 조선시대 괘불	5. 5 - 11. 1
	다시 보는 신라 고분 -서봉총-	7월 - 8월
	고려청자의 精髓, 강진 사당리 청자	9월 - 11월

* 위의 전시계획은 박물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5
39기

박물관 특설강좌 수강생 모집

38년간 개설되어 온 박물관 특설강좌는 전문 강사진에게서 우리 역사와 예술을 배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강좌입니다.

▶ 모집대상	문화에 대해 관심 있는 누구나
▶ 신청기간	2015년 1월 7일부터 접수
▶ 신청방법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101호 (현장접수) 또는 www.fnmk.org (인터넷접수)
▶ 신청서류	수강신청서(현장배부), 반명함판 사진 2매
▶ 교육회비	55만원(1년 수강료)
▶ 모집인원	화요반 200명, 목요반 200명
▶ 수강기간	2015년 3월~12월 (매주 1회, 13:00-17:00)
▶ 수강과목	한국고대사, 고려시대사, 조선시대사 인류와 문화, 비교문화론, 형질인류학 고고학개론, 구석기 문화, 신석기 문화,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낙랑 문화, 고구려 문화, 백제 문화, 신라 문화, 가야 문화 발해 문화, 몽골 문화, 중국 고대 문화, 일본 고대 문화 중앙아시아 미술, 동남아시아 문화 중국 도자, 고려 청자, 분청 사기, 조선 백자 중국 회화, 한국 산수화, 한국 인물화, 한국 풍속화, 궁중 미술, 한국 근현대미술 한국 불화, 중앙아시아 미술, 동남아시아 미술 인도 불교조각, 중국 불교조각, 한국 불교조각, 불교금속공예, 석조미술 한국 건축, 한국 와전, 한국 목공예, 한국 복식, 한국 음식, 한국 고지도 한국 금석문, 한국 고인쇄, 한글, 한국 서예 종교문화, 불교사상, 유교사상
▶ 고적답사	4월, 5월, 6월, 9월, 10월

석조불입상, 고려

祕苑에서의 鄙願

계절의 정취가 가득한 석조물 정원.
평평한 돌이 가지런히 놓인 길을 따라가며
세월이 다듬어 내는 유물들을 일별한다.

어느 아침나절 합장한 여인과 조우한다.
돌부처 두 분이 호젓하게 계셨던 것이다.
불상 앞에 예배라면 낯설지 않은 풍경인데
처음마냥 바라본 건 왜일까.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兪相玉, 柳昌宗 회장을 거쳐 2011년 11월 金正泰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金正泰
副 會 長 | 申聖秀　洪錫肇
理　　事 | 金英那　金信韓　南秀淨　朴殷寬
　　尹碩敏　尹在倫　李健茂　李圭植
　　許榕秀　洪政旭　禹燦奎　鄭溶鎭
監　　事 | 金敎台　朴禎原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 · 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 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주작회원

尹光子　　회원

현무회원

하나금융그룹　金正泰

천마회원

千信一　세중문화재단 이사장
孫昌根　소장가
尹章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SK에너지　申憲澈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朴殷寬　㈜시몬느 회장

금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朴炳燁
㈜한섬　鄭在鳳
㈜STX　姜德壽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權俊一,具在善　Actium 부회장
庚園　광제사 주지
鄭溶鎭　신세계 부회장
都炯泰　갤러리현대 부사장
申聖秀　고려산업㈜ 회장
洪錫肇　㈜BGF리테일 회장
李垓炅　프라이머 대표

尹在倫　서울대학교 교수
許榕秀　GS에너지㈜ 부사장
洪政旭　㈜헤럴드 회장
南秀淨　㈜썬앳푸드 대표
金信韓　대성 사장
李明姬　일우재단 이사장
趙顯相　효성그룹 부사장
李圭植　경신금속 대표

은관회원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鍾漢　㈜종합전기 대표
成弼鎬　광성기업 대표
徐載亮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柳芳熙　㈜풍산주택 회장
金寧明　(재)예올 이사장
최철원　M&M㈜ 사장
金承謙　서륭지주㈜ 대표이사 부사장
姜院基　오리온 대표
金芝延　㈜컨셉 대표
李敎祥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金英姬　회원
朴禎原　㈜두산 사장
梁洪碩　대신증권㈜ 사장
許允秀　㈜ALTO · ㈜ALTEK 부사장
宋　哲　성문출판사 대표
金南延　㈜동훈 대표이사
朴知原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全裁範　금강공업 부사장
許允烘　GS건설 상무
金敎台　삼정회계법인 대표

청자회원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한길봉사회 이사장
金永斌　김&장 법률사무소
玄明官
許正錫　일진홀딩스㈜ 대표
李宇鉉　OCI 사장
金性完　스무디킹코리아㈜ 대표이사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金榮秀　2014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胡鍾一　호성흥업회장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 대표이사
李起雄　열화당 대표
辛永茂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炳讚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朴載蓮　성곡미술관 이사
李鈴子
朴海春
金宗學　서양화가
한국도로공사
玄智皓　㈜화승R&A 부회장
金寧慈　(재)예올 명예이사장
金正宙　㈜NXC 대표이사
梁汰會　㈜비상교육 대표이사
丁恩美　블룸앤코 대표
鄭義宣　현대자동차 부회장
崔惠玉　회원 · 자원봉사
洪誠杓　고려상사㈜ 부회장
崔世勳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朴世昌　금호타이어 부사장
崔杜準　㈜동남유화 부회장
李海珍　NHN㈜ 이사회의장
金澤辰　㈜엔씨소프트 대표
李善眞　목금토갤러리 관장
洋賢財團
薛允碩　대한광통신 사장
李英純　한국미술협회회원
朴正遠　재미교포
金載烈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金仁順　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
曺在顯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
曺榮美　경동소재 대표이사
金世淵　동일고무벨트㈜ 부회장
金兌炫　성신양회㈜ 사장
Joseph Bae　KKR Asia 대표
具本商　LIG 넥스원㈜ 부회장
朴善正　대선제분㈜ 상무
金裕錫　행남자기 대표이사
咸泳俊　㈜오뚜기 회장
金載勳　영풍제약 부사장
高基瑛　㈜금비 사장
尹賢慶　동화약품 이사
韓榮宰　노루홀딩스 회장
崔仁善　회원
吳勝敏　동일산업㈜ 부사장
俞承熹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李宰旭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李萬圭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趙希卿　㈜가온소사이어티 대표
朴宣注　영은미술관 관장

尹　寬　BlueRun Ventures 대표
林鍾勳　한미IT㈜ 대표이사
柳智勳　영남제분 사장
李濬宇　흥아해운 전무
楊仁集　㈜진로 대표이사 사장
尹勝鉉　㈜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吳治勳　대한제강 대표이사 사장
李學俊　서울옥션 대표
李芝衡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金性南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京姬　㈜피오나조경 대표이사
韓惠舟　화정박물관 관장
柳英芝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李胤基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崔再源　SK부회장
李甲宰　삼일회계법인 전무
姜承模　한국석유그룹 부회장
金斗植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成來恩　영원무역 전무
張升準　매경미디어그룹 전무이사
李宇成　이테크건설 전무
張仁宇　선인자동차 대표이사
朴廷彬　신원 부회장
具本赫　LS-Nikko 동제련 상무
禹燦奎　학고재 대표
李哲雨　롯데쇼핑 총괄사장
徐東姓　회원
千碩圭　천일식품 대표
金萬玉　회원
金東官　한화 큐셀 기획실장
洪正國　㈜BGF리테일 이사
陳在旭　하나UBS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崔正勳　대보건설㈜ 본부장
崔雄善　㈜인팩 대표이사
朴璟鎭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洪正道　JTBC 대표이사
沈宗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金侖壽　지리산 문학관 관장
李柱翰　㈜삼익유니버스 이사
李常宰　㈜삼화택시 대표이사
李周成　세아제강 상무이사
金恩惠　서울도시가스 이사
許辰秀　SPC㈜ 전무
洪範碩　㈜남양유업 부장
具本權　㈜LS 과장
朴載相
鄭志伊　현대상선 전무
方正梧　TV조선 실장
尹普鉉　호림박물관 이사